



3장

하나님의 안식(1부)

제 3 장

하나님의 안식 (1부)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내용상 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 두 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통해, 성도가 창조 때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되고 성취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안식을 약속 받은 후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 사람이 준행함으로 진정한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을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들을 초청해 들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 중에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 남아 있다. 이 순간에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미래에 궁극적으로 하늘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 은혜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이다.

본 단원(3·4장) 속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참된 하나님의 안

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와 ‘가나안 안식’이라는 두 예표(豫表)를 실례로 들고 있다. 앞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달은 자들이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마음은 “죄의 유혹으로 강박”(3:15)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마음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3:12)진 마음이다.

- A. 히 3:1~3:6, 예표(모형)적인 모세를 통해 실체(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 B. 히 3:7~4:2, 예표(모형)적인 가나안 안식을 통해 실체(원형)인 ‘하나님의 안식’을 소개한다.
- C. 히 4:3~4:16, ‘하나님의 안식’은 더욱 확장되어 현재의 ‘안식일 안식’(시간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으로 제시되고 이것은 ‘은혜의 보좌’(공간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으로 확고하게 결론지어진다.

우리가 ‘안식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연약함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승리하신 대제사장인 까닭이다.

D. 그리스도의 인성론

우리는 본 단원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현재적 경험 이 다가오는 하늘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 ① 가나안 안식 - 국가적인 안식, 광야에 유리하는 삶의 투쟁의 종식에 들어감, 모형적

- ② 하나님의 안식 - 믿음과 순종의 안식, 창조의 안식, 죄 없는 안식
- ③ 창조의 안식 - 창조 때로부터 제공되어 왔고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 안식
- ④ 영원한 안식 - 하늘에 들어가는 안식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경험은 반복되고 있다.

- 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지만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다.
- ② 사도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 - 그리스도의 승천 후 40년을 방황,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는 경험이 없었다. 여전히 할례와, 유월절 의식들에 집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구속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의 안식이 없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자 불순종과 배도의 역사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A. 예표(모형)인 모세를 통해
실체(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봄(3:1~6)**

-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 - ‘우리가 믿음을 고백(인정, 공인)하는’ 의 뜻이다.

사도 - ‘보내심을 받은 자’란 의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상에 오셨다.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 (1:2)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 (요 14:9)라고 말씀하셨다. 신성이시지만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셨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고로**”
(요 5:30)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4)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이곳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한다. “사도”가 하나님의 대표라면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5:1)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대표하는 인물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서서 “혈육에 함께 속하” (2:14)시고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걸으시며, 시험을 받으시는 모든 경험 속에서 승리하신 분이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2:10) 되시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 (2:9)셨다. 그렇게 아담이 잃어버린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므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 받을 때에, 외로울 때에, 고통 받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다.

2.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본 절은 모세의 충성과 그리스도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다. 서론에서 말

한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세는 위대한 존재였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 하나님의 율법, 성소, 희생제도를 받아 전달한 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사역 모두는 그리스도를 예표(豫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지도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사환”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 (3:6)로 충성하였다. 여기에 쓰인 “집” 을 나타내는 헬라어 ‘오이코스’ 는 함축적으로 ‘일가족’,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 을 뜻하기도 한다. 전장에서 믿는 자들을 “내 형제들” (2:12), “자녀(들)” (2:13), “아브라함의 자손” (2:16)이라고 지칭한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여기 집이란 단지 하나의 건물이나 하나의 집이요 대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 바울이 사용한 단어 하나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3.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 구성원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즉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셨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피조물인 모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였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 제도에 집착하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인 동시에 집 맡은 아들이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그의 집 맡은 아들” (3:6)로 충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로 무

너뜨린 집을 집 맡은 아들이 되어서 다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도 그 집은 계속 세워져가고 있다. 바울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엡 2:21) 간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는 구속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5.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두 절을 대조해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였다. vs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 맡은 아들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였다. vs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였다.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의 모형이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집 맡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말한다. “집 맡은 아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집을 상속할 아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집인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에 확실했던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실족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랑과 긍지 속에 있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말한다. 모세는 종으로서 상속권이 없지만 아들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갈 3:29; 4:30 참고). 우리는 ‘종’ (옛 제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 속한 자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담대함이 있

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롬 8:17), “만유의 후사” (히 1:2)가 되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의 집의 구성원이다. 집은 부모님이 계시고 쉼이 있는 안식처이다. 우리는 그 집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B. 예표(모형)인 가나안 안식을 통해 실체(원형)인 ‘하나님의 안식’ 을 소개함(3:7~4:2)

우리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의 가족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희생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안식과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였다. 이 역사적인 실패는 다윗의 예언적인 안목에서 볼 때 다시 반복되었다. 바울은 다윗의 시편 95편의 권면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시편 95편 7~8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 다윗의 때, 바울의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독자들이 받고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항상 경고 받고 있는 오늘날인 것이다.

성령 - 하나님이신 “성령” (헬, 호 프뉴마 호 하기오스, the Holy Spirit)

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격노의 때 곧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강팍케(딱딱하게, 고집세게) 하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호소하신다.

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심히 분한 마음을 품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 17:3)고 원망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운 처지로 인하여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지 않으시는가”⁵⁶⁾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존재에 관하여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고, 때로는 혹독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교육하셨다. 이때 이스라엘은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관용과 희생적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다.

물을 내기 위해 침을 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모세는 호렙산 반석 위에 그를 향하여 서신 그리스도를 친 것이었다. 반석이 침을 당하고 물을 내는 상징적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슴으로 물을 쏟으시므로 생수를 제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

56)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298.

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출 17:6-7)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사랑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셨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출 16장),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 . .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 (신 29:5) 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는 죄들에 관하여는 묵인하지 않으셨다.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세대 - 광야 생활 40년 동안 범죄한 악한 세대를 말한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신 1:35).

미혹 -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방황하다’, ‘헤매다’ 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죄의 길을 선택하고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

내 길 - 하나님의 길은 광야 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길이었다. 길은 ‘방향’ 과 ‘진로’ 를 나타낸다. 그 길은 단지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길만이 아니라, 길ियो 진리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길이었다. 시편 95편에는 “우리는 . . . 그 손의 양이라” (시 95:7)고 하였다. 하나님은 목자처럼 그 길을 인도하셨지만 마음이 미혹당한 그들은 늘 곁길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우상 숭배의 잘못된 행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거룩하고 신령한 문화 가운데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 은 궁극적으로 죄의 미혹된 길

에서 구원을 얻는 ‘구속’의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원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맹세 -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맹세하셨다.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겔 20:6).

그러나 그 맹세는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 (8:9)하므로 성취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범죄 하여 반역이 극에 달하였다. 그들은 여행 내내 그들의 목전에서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모세는 고별설교에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셨다” (1:2)고 지적하였다.

이제 축복 대신에 언약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민 14:29) 곧 하나님을 원망한 악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고 선고가 내려졌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맹세로 선포되었다.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 14:29~30)

왜 이토록 비참한 결과가 초래 되었는가? 에스겔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주된 원인을 지적하였다. “올레 . . . 규례” (겔 20:11)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 (겔 20:13)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 을 주시기를 원했다. 가나안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 의 모형이었던 것이다.

내 안식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명을 순종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안식’ 에 들어간 자만이 ‘가나안 안식’ 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안식’ 은 ‘하나님의 안식’ 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교훈하는 모형이요, 표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나안 안식은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구속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의 모형이었다. 모세는 너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 (신 25:19)시는 땅이라고 말하였다.

안식의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은 **대적의 칼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그리워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다.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렘 31:2~3)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 4:19)

이스라엘이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죄의 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죄짐을 벗을 때에 이르러 오는 영혼의 휴식이다.

12.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온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붙잡는 손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우리를 그 능력으로부터 분리시키므로 경계해야 한다.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케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지금, 현재에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서로 권면하라’는 권고에는 서로 용기를 돋우고 격려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은 나와 형제가 함께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죄의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완고하게 하고, 딱딱하게 되어 점차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광야 길을 걸었지만 그곳에서도 죄는 때때로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한 발람은 모압의 신접한 여자들의 죄를 매력적으로 포장함으로 이스라엘을 범죄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모압의 미희들을 동원해 신전의 제의에서 춤추도록 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그 음행에 동참하게 하였다. 결국 제의에 참여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아간은 아이성 정복 때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수 7:21)과 금은 덩어리에 마음을 빼앗겨 범죄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것을 지적하실 때까지도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결국 아골 골짜기

에서 돌로 침을 당하였다.

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할 때에 큰 구원을 맞보았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구원함을 받았고,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넜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 인도할 때 그들의 확신과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그러나 광야 여행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처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들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데 실패하였다.

바울 당시에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확신 있는 기별로 확증을 받았던(2:3) 성도들의 믿음은 충만했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 하셨었다” (2:4). 그러나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2:3) 되었다.

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날” (7; 15), “오늘” (13) 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과거(모세 당시) - 불순종 -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
- ② 바울 당시 - 그리스도를 거절 -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
- ③ 현재 오늘날에도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16.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었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

16~18절에는 “누구”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로서, 하나님이 듣고 격노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신 자들이다. 왜인가? 어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 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고를 받고 말았다. 여기에서 “그의 안식” 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19.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불신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능히 “들어가지 못 하였다” .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인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 14:27~28)

[이스라엘의 실패가 반복될 위험]

- ①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였다.
- ② 영적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인하여 시험을 받는다.
- ③ 많은 자들이 이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할 것이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출 16:4).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신 29:5).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8:4).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신 8:4).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 하는데 실패하였다.